“승가교육 개혁 지속 기반 수립”

조계종 교육원 신년기자회견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지난 10년간 진행된 승가교육 개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현응 스님이 밝힌 올해 사업 계획은 그간 진행돼 온 승가교육 개혁의 정착 · 지속 기반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현응 스님은 신년기자회견문에서 “교육원장 소임을 맡았던 지난 9년간의 핵심적 노력은 현대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이라는 문제의식을 담은 교육과정 개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여전히 중국 수 · 당시대 형성된 불교관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표현언어도 한문 언어가 강세지만 서서히 변화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2600년 전통의 불교가 새롭게 개편된 승가교육을 통해 점차 현대와 당대중생을 만나게 될 때 시대에 부응하는 교화의 자비방편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임 마지막 해인 올해의 교육원 사업도 ‘불교의 현대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비실현’이라는 승가교육개혁의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가교육 개혁은 계속된다”는 이 같은 기조는 올해 교육원 사업에도 반영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봉행되는 ‘교육불사 후원법회’다. 당시 모연된 승가교육기금으로 6~7대 교육원 집행부는 장학금, 교직자 연구비, 승려연수, 학인대회 등 원활한 교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승가교육기금은 전부 소진됐고, 기금 모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1월 23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응 스님 임기 마지막 해
승가교육 내실화 · 정착 방점
후원법회 · 교육기관 특강도
승가결사체 연수 인증 확대
대학원 졸업성과물 의무 제출

임기 마지막 해에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후임 교육원장과 집행부가 교육개혁불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현응 스님의 의지다. 후원법회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현응 스님은 오는 3~4월까지 직접 전국 40여 곳의 교육기관을 다니며 특강과 교직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법교화 중심의 승가교육과 승가상 구현’이라는 승가교육개혁 기조를 현장에 전달 ·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지난 9년간 승가교육 개혁을 지속해왔다”면서 “지난 개혁들의 내용이 안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사업들은 이 같은 판단아래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응 스님은 “승가교육 정책은 이제 내실 있는 정착으로 가야한다”며 “동국대 한문아카데미와 경주캠의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등 전국에 승가교육기관이 40~50곳이 된다.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원은 사찰승가대학원 학인 스님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졸업성과물(논문 · 번역문 · 보고서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수 연구물들은 공유하기로 했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 인증은 지원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도 1억4000만원으로 2배 증액했고, 단체도 기존 19곳에서 24곳으로 늘린다. 이들 중 모범사례는 ‘법계 과정’ 연수교육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연수 교육 대상 확대를 위해 현행 승납 30년 미만을 상향 조정하는 종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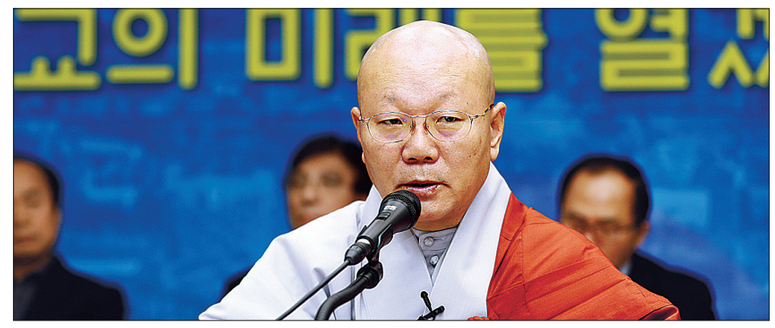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행혁신 ‘RESTART’

조계종 포교원 신년기자회견

조계종 포교원이 2016년 기치로 건 ‘신행혁신’ 운동을 확대 전개한다. 신행정보센터 개설과 생활의례 보급 등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수행과 신행활동 지원,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운영기조를 ‘신행혁신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발표했다.

이날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신행혁신 운동의 대중화 작업과 미래세대 포교, 포교 콘텐츠 개발 등 전방위적인 포교 활성화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홍 스님은 포교전법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행정보 제공, 생활의례 보급
〈불교성전〉 편찬 본격화 예정
직장불자회 등 네트워크 강화
모바일 등 뉴미디어 포교 개발
어청공동사무국 등 실무지원도

신행혁신 대중화 ‘원년’

조계종 포교원은 2016년 신행혁신에 대한 로드맵과 기본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포교원은 2017년과 2018년 신행혁신 운동안내서, 실천안내서, 신행일지 보급 등에 나섰다. 올해 신행정보센터를 개설해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종단 사찰에서 시행하는 신행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생애주기별 우리말 생활의례도 정립된다. 현재 포교원은 의례실무위를 두고 중앙종회 의례심사특위와 활동하고 있다. 태교, 백일, 영유아 관정의례, 성년의례, 화혼의례 등 다양한 생활의례가 법요집으로 편찬된다.

사업 설명에 나선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생활 속 수행을 위해 의례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종단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포교원이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대 포교기반 강화

이와 함께 탈종교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노력도 이어진다. 포교원은 그동안 어린이청소년위원회, 동련, 파라미타,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 등에서 청소년마음등불, 신행축제 등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위를 구성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학생 포교조직 준비위로 포교원은 대불련, 대불련동문회, 대학생전법단 등으로 준비위를 구성하고 2020년 대학생 포교를 전담하는 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포교 콘텐츠 기반작업 본격화

지난해 종령 제정 등 기반작업을 다진 종단 최초 〈불교성전〉 편찬도 본격화된다. 불교성전은 일반 불자들이 수지독송할 수 있는 요전이다. 올해 2월 26일 불교성전편찬위 고불식을 시작으로 전문위원 위촉이 진행된다. 이어 교계 의견수렴 및 경전 인용 원칙 및 기준, 체제 설계 방안이 마련된다. 불교성전은 2020년 10월 경 편찬, 봉정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청소년용, 점자 및 모바일 앱과 e북 형태로도 개발된다.

포교전법의 기반이 될 불교성전과 함께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도 이뤄진다. 올해는 10월 경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교지도가 완성된다.

포교 신도 네트워크 활성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불자회를 시작으로 기존 포교사단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토론회가 이어지며 단복개선을 비롯한 포교사 제도개선 등이 이어진다. 또 어린이청소년단체 실무인력 지원을 위해 공동사무국이 운영되는 등 각 포교단체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신도교무금 제도 개선 등 당면 과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대중이 함께 힘을 모아 전법 포교 활성화에 역주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정숙 여사 ‘화엄세상’ 발원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최초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에 참석, 불교계와 함께 화엄세상을 발원했다. 김정숙 여사는 1월 18일 서울 조계사서 봉행된 신년하례법회서 “역사의 고비마다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 불자들의 용맹정진을 기억한다. 서로를 부처로 모시는 세상, 모두가 저마다의 모양과 빛깔대로 만드는 화엄세상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법진 스님, 징역형에도 직책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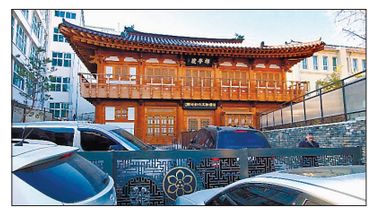
〈선학원 이사장〉

선학원 이사회, 법진 스님 임기 유지 결정
이사 14명 중 11명 찬성
2020년 8월까지 임기 수행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사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학원 이사회는 1월 24일 서울 안국동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비공개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대법원이 지난 1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이후 처음 열린 이사회로, 이사장 거취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선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는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사장 법진 스님의 거취문제는 공식안건이 아닌 기타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서는 법진 스님이 과거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표 수리에 대해 단 3명의 이사만이 찬성했으며, 11명의 이사들은 이사장직 유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진 스님은 4년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8월 말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선학원 이사회가 열린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선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여러 이사들과 사전에 이사장 거취문제를 놓고 대화했다. 겉으로는 사퇴에 동의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투표를 하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학원 이사회 결과에 대해 법진 스님의 퇴진을 요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이사회의 권력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재차 확인하게 됐다.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